

# 음악회부터 전시회까지... 문화 대통령 DJ 기린다

전일광장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판소리에 취임 새를 넣을 줄 알았고 팽과리, 장구, 북도 조금은 칠 줄 알았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시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이 나면 연극, 뮤지컬, 영화 등을 보러 갔다. 그가 1992년 정계 은퇴를 한 후 그의 사무실에는 공연과 전시 초대권이 수북이 쌓였다. 그가 영화, 연극 등을 즐긴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또 문화예술인들과 가까이 지낸 대표적 정치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문화 부문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1%가 되도록 했다. 그의 대통령 재임 시기가 IMF 위기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 지원 정책은 문화 전반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가 연속 상영되었고, 한류가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휩쓸었다. 한국의 아이들이 아시아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예술 정책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킨 민주주의, IT 산업 및 복지정책과 함께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었다.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다. 반갑게도 올해 광주에서 문화 대통령 김대중을 기리는 문화 행사가 여러 차례 열리거나 계획 중이다. 맨 먼저 테이프를 끊은 것은 광주 김대중 재단이었다. 김대중 재단은 지난 6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1700석 자리를 꽉 메운 이날 공연에는 김 대통령의 손자 며느리 최자현 씨가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4월부터 8월 18일까지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 1층에 총 3부로 구성된 기획전시는 1부에서 민주화운동 지도자, 2부에서 대통령 시절, 3부에서 평화 지도자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개최된 전시회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규모가 큰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추모사업회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8월 17일 오후 5시 전남대 민주마루 강당에서 김대중 서거 15주년 기념 음악회 '미래를 향하여'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시민주요형 합창단인 ACC 시민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나

혜숙, 윤병길 전남대 교수, 광주 솔리스트 앙상블, 아버지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광주시 출연 기관인 광주문화재단도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김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드라마 콘서트'를 선보인다. 제목은 '평화의 별, 통일의 강-인동초 사랑'이다. 광주시가 지원하고 문화재단이 제작한 이번 콘서트에는 대통령의 일대기를 번사 이황의 씨가 해설하고, 성악가 고성현, 장주훈, 권로, 가수 신원형, 소리꾼 이영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정중을 즐겁게 한다. 또 콘서트에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대중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음악 예술을 모토로 창단한 '코리아모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인동초 사랑 시민 합창단'이 협연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한 뒤 서울 잠정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처음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만드는 문화는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라면서 "우리 모두 문화시대의 도전에 적극 응전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계승과 세계 문화 수용, 문화예술의 제도적 물질적 지원 등 문화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5개의 정책도 제시했다. 세계적 명성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 김대중! 그가 문화를 통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의 훌륭한 지도력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넘어 한민족의 앞길에 희망이 되기를 빈다.



기고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시대에 광주는 공공의료원이 없다.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지역의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광주의 공공 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설령, 광주 인구가 늘어도 의료 취약성이 개선 안 된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져 지역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광주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게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광주 공공의료원 역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 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가 그토록 염원했던 공공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 원도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뿐이다. 그렇다. 광주의 서운함과 불만도 현 의료 상황이 취약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에 절실하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기재부는 물론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경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당시 공공의료원을 담당하는 과장과 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심도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다. 당시 느꼈던 건 광주시의 관점과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라면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기에 쉽지 않음을 느껴 우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의 가장 큰 우려는 광주의 의료환경이 타 지역 대비 나쁘지 않다

는 점과 설립 이후 운영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역시 기재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의 입장은 다르다.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 조사로 공공의료 확대를 막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광주시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정책적 판단을 의지하는데 비중이 강했지만 반면 중앙부처와 실무자들은 지역의 특성과 의료 현황 등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불공정한 기재부도 문제다.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13조700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사업'에 해당해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 데도 말이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을 보면 지방과 지역의 필수 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지난해 10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6000억 원(37.8%)을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공익적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대로 광주 공공의료원의 예타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기준 완화를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

### 독자투고

#### 개정된 집회·시위 소음기준

집회 현장에서 방송차 등을 이용해 구호를 제창하거나 앰프를 사용하여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그들의 요구를 좀 더 널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주변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집회·시위 소음기준이 강화되었다. 기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서 5dB씩 하향 조정하되,

소음 피해로부터 가장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인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과 심야 시간대의 소음기준은 10dB씩 하향 조정하여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서 야간은 해진 후부터 24시까지를 말하고, 심야는 0시부터 7시를 말하며 시민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경찰관은 집회 현장에서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만 유지하도록 유지명령을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조

치를 방해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5~10dB씩 하향 조정하여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며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물론 이 개정만으로 집회 현장 속 시민이 겪는 소음 불편을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순 없었지만 집회 참가자와 시민 두 그룹의 각각의 기본권을 상호 존중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

김정은 <여수경찰서 경비안보과>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